

농촌노인 5명 중 4명 '건강 이상'

장성군, 16개 경로당 503명 진료 ... 402명이 각종 질환 시달려

농업인 재해 보상 등 제도마련 시급

힘든 농사일로 농촌 노인 5명 중 4명꼴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농민들은 3~4가지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어 보건 당국의 체계적인 대책과 농업인 재해 보상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성군이 최근 장성을 백계1구 경로당과 황룡면 월평4구 노인당, 삼계면 옥전경로당 등 16개 경로당 노인

503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료를 실시한 결과, 402명(79.9%)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염이 235명(58.4%)으로 단연 많았고 다음으로 고혈압 115명(28.6%), 당뇨병 39명(9.7%), 심혈관계 질환 13명(3.25) 등으로 나타났다.

또 허리 디스크나 골다공증, 목디스크, B형 간염, 천식, 근막통(근육통)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노인들은 3~4개의 질환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가 하면 2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30~40%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근골격계 질환은 농업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정신적·신체적 장애 증후군으로 고혈압과 동맥경화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어깨 결림이나 요통, 손발저림 현상이 나타난다.

장성보건소 관계자는 "대다수 노인들이 젊을 때는 고된 농사일로, 나이 들어서는 무리한 일과로 인해 만

성 퇴행성 질환을 키우기 심상"이라며 "몸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부 허브(hub) 보건소로 지정된 장성보건소는 한의사 3명, 간호사 6명, 방문간호사 8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팀을 구성해 고혈압과 당뇨병, 관절염, 중풍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한방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함평군 '독립운동 역사관' 건립 본격화

상해임시정부 청사 원형 복원 ... 연내 완공 개관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함평 독립운동 역사관'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함평군은 27일 "일강(一江) 김철 선생이 활동했던 지상 3층 면적 498㎡ 규모의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독립운동 역사관' 건립을 위해 국비와 군비 등 15억 9천800만 원을 들여 오는 4월부터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념관은 지난 2006년 김철 선생 기념관이 있는 신광면 함평리에 건립을 추진했다. 예산 부족으로 골조 공사만 완료했다.

군은 제 89주년 3·1절을 계기로 독립운동 역사관 건립 공사를 재개한 뒤 올해 안에 완공해 개관할 예정이다.

군은 건물 마감공사가 끝나는 대로 현재 수집해 놓은 항일운동 관련 사진과 일본군 제복, 화살통, 고문기구 등을 전시해 역사학습



지난 2006년 예산 부족으로 골조공사만 마쳤던 함평 독립운동 역사관이 연내 개관된다.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함평군은 지난 1999년부터 국비 등 21억 7천여 만 원을 들여 호남의 대표적 독립유공자인 일강 김철 선생의 애국정신을 재조명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신광면 함평리에 사당과 기념관, 생활관, 생가 등을 건립, 2003년 6월 개관했다.

신광면 함평리 태생인 일강 김철 선생은 가산을 정리해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고 상해임시정부 당시 재무장, 군무장, 비서장 등을 지냈으며 선생의 탄생 120주기를 맞은 2006년 국가보훈처로부터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지정됐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농협·지자체 협력사업 '성과'

완도군지부 4년간 27억8천만원 지원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4년간 지자체 협력사업을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완도군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관내 농협을 통해 농업생산 지원시설 16건에 사업비 27억8천 만원을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고급농협 유자가공 공장 시설과 농산물 집하센터 시설, 석류제배단지 조성사업, 유

자묘목 교체사업, 시금치 계약재배 사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과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등이다.

정동한 지부장은 "농가소득 증대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도 농업기반 구축 및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 등 지자체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방울토마토 출하

담양군 무정면 대숲 토마토 연합단 선과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방울토마토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담양산 방울토마토는 5kg 한상자 당 1만3천원에 대형 마트와 농산물 시장으로 판매되고 있다.

담양군 무정면 대숲 토마토 연합단 선과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방울토마토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담양산 방울토마토는 5kg 한상자 당 1만3천원에 대형 마트와 농산물 시장으로 판매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진·완도 축협 합병

자산 1천억원대 거대 조합 탄생

강진과 완도 축산업협동조합이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 1천억원대의 거대 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26일 실시된 강진과 완도축협 흡수합병 찬반 재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1천499명중 1천110명(7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85표, 반대 518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에따라 강진축협은 최종 합병 결재인 정관계정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거쳐 오는 6월께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번 합병으로 지난해 8월 부실채권 등으로 합병권고를 받은 완도축협은 부채 90억원과 3년내 부실 예상 부채인 30억원(215건)을 축협 중앙회에서 모두 지원받게 됐다.

새로 합병되는 축협은 강진·완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며, 현 강진을 남성리 강진축협이 본소로 공음터미널 옆 남성지점, 완도지점, 고금지점이 설치된다.

통합 자산규모만 999억원(강진 493억·완도 506억)에 이르게 될 강진·완도축협은 이사진도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은 33명씩 66명으로 확대된다.

이중대 강진축협장은 "강진·완도 지역 축산물 판매시장의 유기적인 교류로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강진에 화물차 물류단지 조성

2천대 동시 주차

강진에 대규모 화물자동차 물류단지가 들어선다.

강진군은 오는 2009년까지 성전면 일대 13만여㎡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화물자동차 물류단지가 민간업체에 의해 조성,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건설에 나선 것은 강진이 전국 최초다.

강진 성전 일대는 목포~광양, 제주~완도~서울을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이자 서남부지역 대표적 교통 요충지다.

군은 이 같은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 공영 차고지 조성 지원 등을 건

교부에 꾸준히 건의해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물류단지에는 화물차 2천여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와 운송업체 사무실, 운전원 휴게실, 화물 환승시설, 물류창고, 택배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24개 업체, 800여 대의 차량이 주 사무소를 강진으로 옮기는 등 연간 20억 원대의 직·간접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영세한 운송업체의 사정을 감안, 차고지를 최대한 저렴하게 임대해 줄 계획이며 수면실, 운동실, 샤워나실 등 운전원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곡성군 '참 살기좋은 마을 사업' 공모

곡성군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가치가 있는 요소를 발굴해 계획을 수립,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모 대상은 곡성군 전 마을로 응모한 마을 중 사업계획서 및 주민 참여도를 고려해 일반마을 3곳, 담장없는 마을 1곳 등 4개 마을을 선정,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서는 다음달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선정된 일반마을에는 마을당 사업비 2천만원, 담장없는 마을에는 4천만원이 지원돼 일반마을가꾸기 사업과 함께 담장을 없애 계획이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광산구 '우리고장 문화재 지키기' 모집

광산구가 관내 문화재를 점검하고 보호하는 '우리 고장 문화재 지키기'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광산구는 수시로 교차 점검이 가능토록 문화재 한 곳당 3~5명의 지킴이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상 문화재는 고풍 기대승 선생을 배향한 비탈담, 용아 박용철 시인의 생가 등 17개소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가 9곳에 달해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원활하고 신속한 점검 활동을 위해 해당 문화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문화재 지킴이로 우선 위촉할 방침이다. 구는 심사를 거쳐 60여 명을 확정해 3월 12일경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의(040-8225)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물 선물은 정성이 가득한 막베오! 막베오 세트

www.makbeob.co.kr

1544-8567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 한방으로 치료

장장복도관, 허수 2관, 진원복음으로 8년 남성회고인 체험

한방치료,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노화, 활력, 효능

www.kangnam1.com